

현안과 과제

| 포스트 차이나 시장이 무역 강국의 기반이다

< 요약 >

1. 포스트 차이나 시장 발굴의 필요성

한국의 경제 성장은 외수에 상당 부분을 의존해 왔다. 한국 경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고려한 수출의 실제 성장 기여도를 계산해 보면, 글로벌 위기 이전('00~'0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5.2%중 절반인 2.6%p가 수출이 견인한 반면, 위기 이후('10~'11년) 경제성장률 5.0% 중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3.4%p의 기여를 할 정도이다. 특히 한국이 최근의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21세기 초반 급부상하는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위기 이후 아시아 주요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대 중국 수출/ 해당국 GDP)가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2010~11년 기준으로 약 12.9%의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중국 경제는 경제 발전 단계의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현재의 모든 국제분업구조와 산업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의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감소분은 2010~20년 0.9%p, 2020~30년에는 0.8%p로 추정된다.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2의 중국 시장이 될 수 있는 '포스트 차이나 시장'의 발굴이 시급하다.

2. 세계 경제의 코어 이동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동되는 가운데, 개도국 경제의 특징은 성장 캐취업, 교역 비중 증가, 자본 집중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신흥시장·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성장률 및 경제 발전 속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1990년대(1990~'00년) 선진국과 신흥시장·개도국의 경제성장률 격차는 연평균 1.0%p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2001~11년)에는 4.6%p로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인구 증가를 고려한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1인당 GDP 증가율 자체도 후진국의 성장세가 확연하게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후진국이 선진국의 경제 발전 수준을 따라잡는 '캐취업(catch up)'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제품의 복잡 다기화, 무역 장벽의 완화 등의 이유로 세계 수출·입 모두에서 개도국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후진국수출액/세계총수출액 비중은 2000년 26%에서 2011년 36%로 약 10%p가 높아졌다. 한편, 후진국이 세계 교역에서 공급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증가율도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개도국의 고성장과 교역비중 확대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 자본을 유인하

고 있다. 고소득국 즉 선진국에 대한 net inflow FDI(순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1조 달러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저소득국은 2000년 1,500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5,000억 달러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세계 순 FDI에서 후진국으로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에서 2010년 35%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3. 2013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

이렇게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에서도 향후 주목해야 할 신흥 시장으로 ABC, 바트(Baht)경제권, GCC, ECOWAS의 네 개의 지역을 들 수 있다. **첫째, 규모의 경제, ABC이다.** 이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말한다. 이들 국가들은 과거 디폴트로 인한 침체를 벗어나 대규모 시장으로써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최근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속도의 경제, 바트(Baht) 경제권이다.** 바트 경제권은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을 의미한다. 바트 경제권 국가들은 금융위기에도 양(陽)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IMF에 따르면 향후에도 6%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 경제권은 지리적으로 중국 시장으로의 침투가 유리하고 경제 개발 초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는 등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셋째, 자원의 경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를 들 수 있다.** 중동 걸프만의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 산유국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의 필수 원자재인 원유자원의 확보처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으로 높아진 구매력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가능성의 경제,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 경제협력체)를 들 수 있다.** ECOWAS는 서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 등 약 15개국을 회원국으로 가지는 경제협력체를 말한다. 이들 지역은 자원의 보고로 세계 주요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가 높고 구매력도 상승하고 있어 수출 시장으로써의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4.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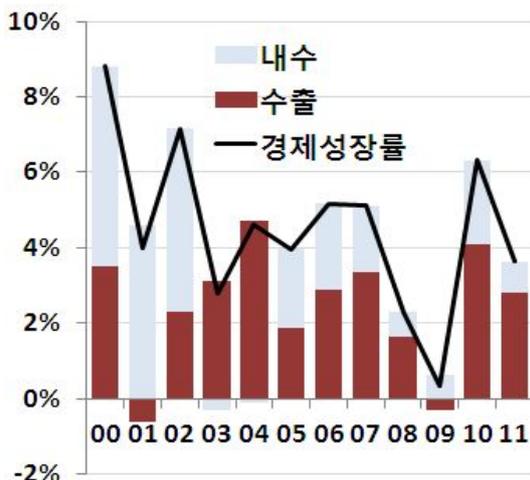
성공적인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첫째, 신흥 경제권에 대한 접근은 정부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경제적 협력 관계를 동반해야 한다. **둘째,** 시장 진출 목적에 맞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이 요구된다. **셋째,** 진출에 앞서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신흥 시장 고유의 투자 환경 및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1. 포스트 차이나 시장 발굴의 필요성

○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수요 및 중국 의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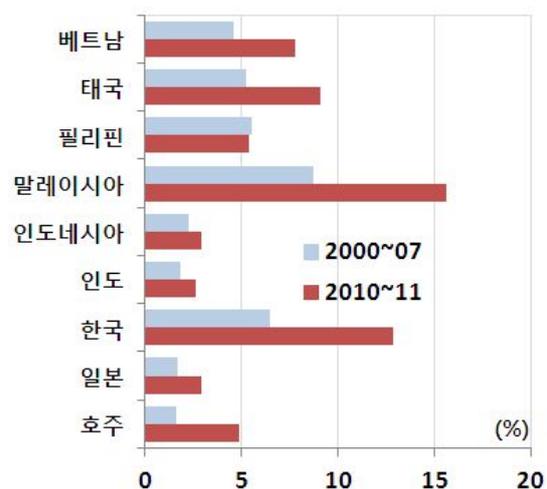
- 한국의 경제 성장은 외수에 상당 부분을 의존해 왔고 앞으로도 대외 경제의 성장력을 흡수하여 자신의 성장 에너지로 만들어야 함
 - 수출의 직접적인 성장기여도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출 부문으로부터 경제 전반에 순차적으로 파급효과가 막대함
 -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고려한 수출의 실제 성장 기여도를 계산해 보면, 글로벌 위기 이전('00~'0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5.2%중 절반인 2.6%p가 수출이 견인한 반면, 위기 이후('10~'11년) 경제성장률 5.0% 중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3.4%p의 기여를 함
- 특히 한국이 최근의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21세기 초반 급부상하는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의지했기 때문임
 - 글로벌 위기 이후 아시아 주요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대 중국 수출/ 해당국 GDP)가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2010~11년 기준으로 약 12.9%의 의존도를 기록함

<한국의 실제 수출의 성장기여도1>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계산.

<아시아 주요국의 대중국수출/GDP 비율>



자료: IMF.

1) 각 연도의 국민계정상 수출만의 기여도를 산업연관표(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상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로 조정하여 연구원 자체 계산한 수치로 한은에서 발표하는 수출이나 순수출 기여도와는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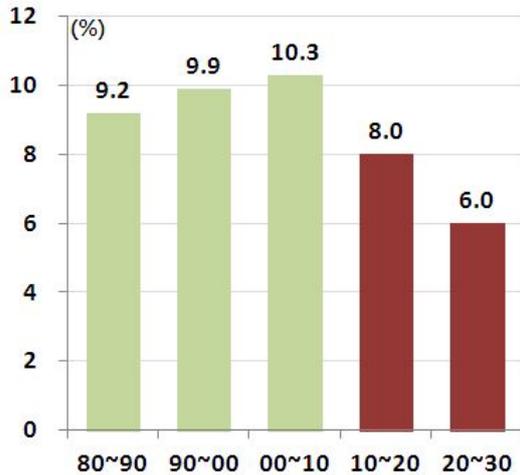
○ 포스트 차이나 시장의 발굴 필요성 증대

-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 성장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해외 수요를 확보해야 함
- 현재에도 선진국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중국이 경제의 성숙화 단계로 진입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경제 의존 구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당분간은 중국의 빠른 경제 발전을 동력 삼아 우리의 성장을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겠지만,
 - 중국은 시장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신하고 있고 이미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은 더 이상 신흥시장이라고 하기 어려움
 - 그동안 한국 경제의 해외 시장 수요 중심에는 중국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중국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향후 중국 경제는 경제 발전 단계의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임
 - 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현재의 모든 국제분업구조와 산업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 2010~20년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의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감소분은 0.9%p로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없다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3.4%p로 하락하게 됨
 - 또한 2020~30년의 기간에는 중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감소분은 0.8%p로 잠재성장률 자체를 2.6%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²⁾
-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자원 조달 시장과 직접 진출

2) 현대경제연구원 (2012a)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98~'07년) 4.7%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08~'12년) 3.8%로 하락. 2000~10년 기간에는 평균 4.3%를 기록함. 한편, 현대경제연구원 (2012b)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1%p 감소시 한국 경제성장률은 0.4%p 하락 압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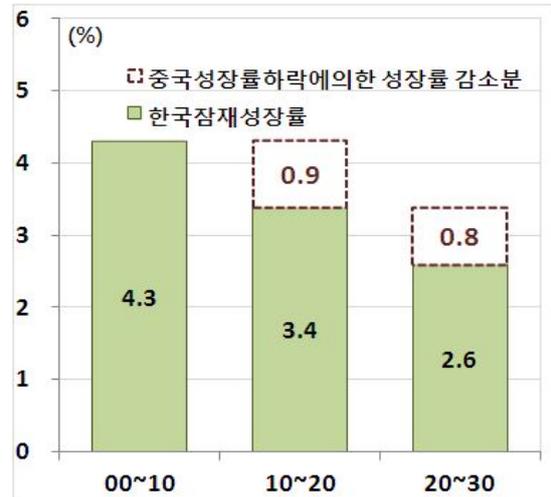
을 겨냥한 투자 대상 지역으로의 가치가 있는 신흥 시장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하는 긴박함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ADB.
주: 2010~20년 및 2020~30년은 전망치.

<중국 성장률 하락의 한국 성장률에 대한 영향>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ADB의 중국성장률 전망치를 이용한 추정.

2. 세계 경제의 코어 이동

○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동되는 가운데, 개도국 경제의 특징은 성장 캐치업, 교역 비중 증가, 자본 집중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20세기가 선진국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했다면 21세기는 개도국 및 중진국들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시대이며, 따라서 사업의 기회는 선진국보다 역동적인 신흥시장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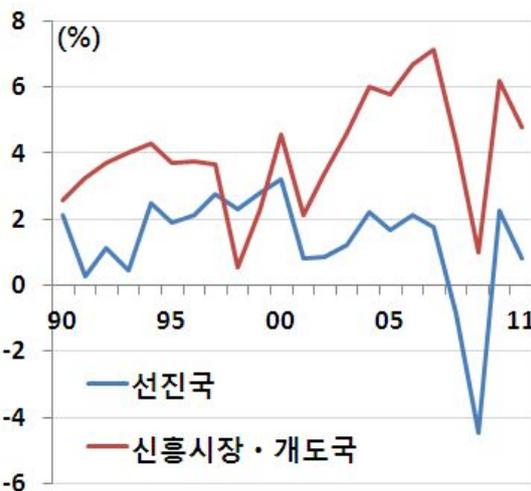
○ (경제 발전 캐치업³⁾) 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신흥시장·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3) Robert J. Barro의 이론으로 후진국이라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선진국의 경제발전 정도를 추격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소득의 수렴가설(convergence of per capita income)로도 불리우고 있음.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실증분석 결과로는 Baumol(1986), Mankiw et al(1992)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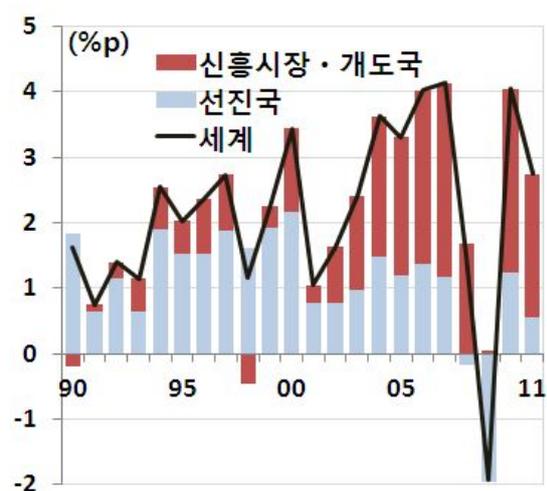
경제성장률 및 경제 발전 속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남

- 1990년대(1990~2000년) 선진국과 신흥시장·개도국의 경제성장률 격차는 연평균 1.0%p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2001~2011년)에는 4.6%p로 크게 확대됨
 - 1990년대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9%, 신흥시장·개도국은 3.9%를 기록하였으며,
 - 2000년대에는 선진국은 1.6%로 낮아진 반면 신흥시장·개도국 경제성장률은 6.2%로 크게 상승함
- 또한 인구 증가를 고려한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1인당 GDP 증가율 자체도 후진국의 성장세가 확연하게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후진국이 선진국의 경제 발전 수준을 따라잡는 '캐치업(catch up)'이 나타나고 있음
 -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선진국이 1990년대 2.0%에서 2000년대 0.8%로 낮아진 반면, 신흥시장·개도국은 같은 기간 3.3%에서 4.7%로 상승함
 - 이에 따라 세계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을 100으로 보았을 때 신흥시장·개도국의 기여 정도는 90년대 17%에서 2000년대 60%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됨

<선·후진국의 1인당GDP증가율>



<선·후진국의 세계 1인당GDP증가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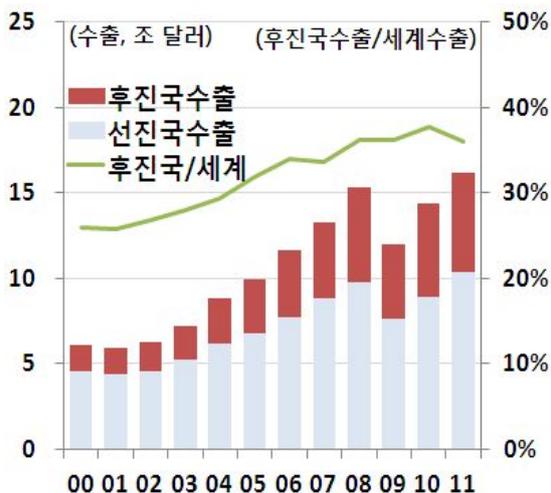
자료: IMF.

주: real GDP per capita 기준.

○ (교역 비중 증가) 제품의 복잡 다기화, 무역 장벽의 완화 등의 이유로 세계 수출·입 모두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임

- 후진국 수출액/세계 총수출액 비중은 2000년 26%에서 2011년 36%로 약 10%p가 높아짐
 - 선진국의 전체의 수출액은 2000년 4.5조 달러에서 2011년 10.4조 달러로 약 2.3배 증가한 반면,
 - 후진국의 경우 같은 기간 1.6조 달러에서 5.8조 달러로 3.6배 증가함
- 한편, 후진국이 세계 교역에서 공급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증가율도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임
 - 글로벌 위기 이전의 기간('00~'07년)의 경우 선진국의 수입(명목 달러화수입액 기준)증가율은 연평균 10.1%이었으며 후진국도 16.2%의 증가율 보임
 - 글로벌 위기 이후의 기간에도 전반적인 교역 위축 현상이 발생하여 선진국은 1.3%의 수입 증가율에 그쳤으며, 후진국도 4.5%로 낮아짐
 - 그러나 전세계 수입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후진국 수입이 글로벌 위기 이전 평균 25%에서 위기 이후 33%로 높아짐

<선진국 및 후진국 수출입 추이>



<선진국 및 후진국 수입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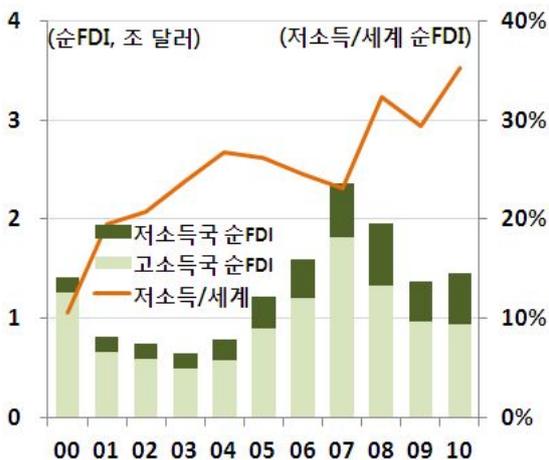
	'00~'07	'08~'11
세 계	11.6%	2.3%
선진국	10.1%	1.3%
후진국	16.2%	4.5%
후진국수입 비중	25%	33%

자료: UNCOMTRADE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선진국은 OECD 34개 회원국 기준.

○ (자본 집중 확대) 개도국의 고성장과 교역비중 확대는 선진국 자본을 유인하고 이는 개도국에 대한 자본집중 현상을 유발함

- 고소득국 즉 선진국에 대한 net inflow FDI(순외국인직접투자)⁴⁾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1조 달러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저소득국은 2000년 1,500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5,000억 달러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세계 순 FDI에서 후진국으로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에서 2010년 35%로 빠르게 증가함
- 한편, 주요 지역별로 보면 남반구 신흥 지역에 대한 투자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나 그 자본 유입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전 세계의 순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조 4,575억 달러로 이중 약 83%가 유럽·중아시아, 동아시아·태평양, 북미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반면 중남미, MENA, 남아시아, SSA 등의 남반구 신흥지역의 경우 순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2000년대('00~'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체적으로 빠른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음

<소득기준별 순외국인직접투자 >



<지역별 순외국인직접투자(억 달러)>

지역	2010년		증가율 ('00~'10)
	금액	비중	
세계	14,575	100%	0%
유럽·중아시아	5,673	39%	△3%
동아시아·태평양	3,788	26%	9%
북미	2,602	18%	△4%
중남미	1,330	9%	4%
MENA	642	4%	19%
남아시아	279	2%	20%
SSA	261	2%	15%

자료: 세계은행.

주: 1) 순외국인직접투자(net inflows FDI) = 신규·증액 투자 - 투자 회수·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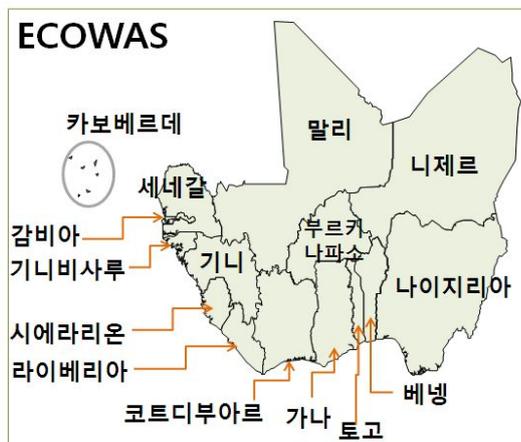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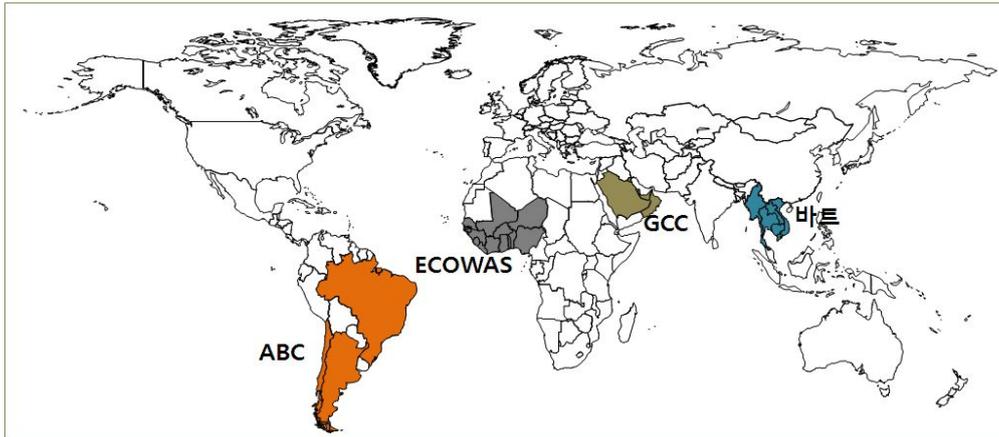
2) 고소득국은 세계은행 통계 분류상 high income 그룹, 저소득국은 low income 및 middle income을 합한 것임.

4) 신규·증액 투자에서 투자 회수·철회 부분을 차감한 것을 의미함.

3. 2013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

- 현대경제연구원은 ABC, 바트(Baht)경제권, GCC, ECOWAS의 네 개의 지역을 2013년 주목해야할 신흥시장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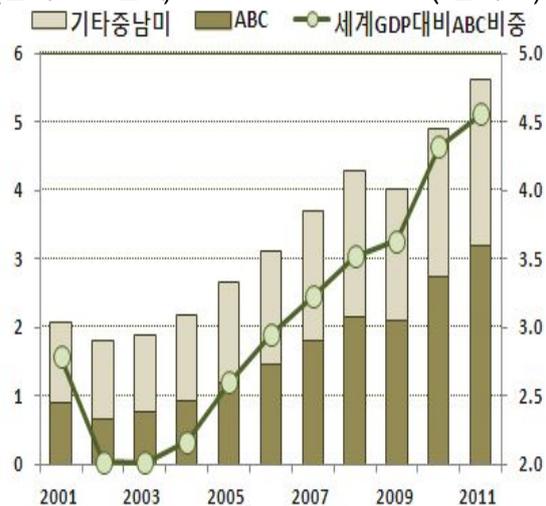
< 4대 신흥시장의 지리적 위치 >



① 규모의 경제 -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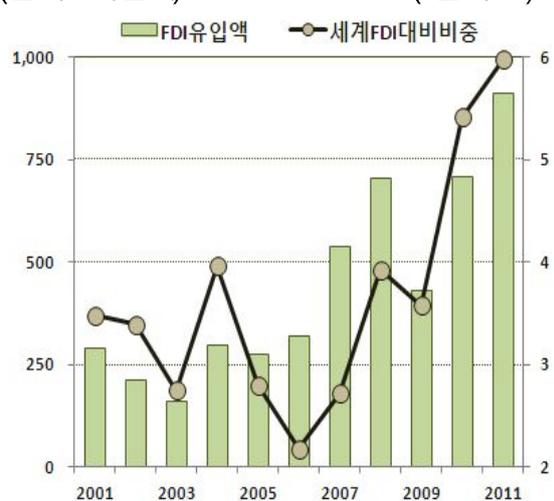
- 남미의 아르헨티나(Argentina), 브라질(Brazil), 칠레(Chile)를 일컫는 말로, 과거 디폴트로 인한 침체를 벗어나 대규모 경제권의 장점이 부각
 - 기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낙관적인 경제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거대 소비 시장의 형성이 예상 (단, 최근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우려가 다시 확산중)
- ABC는 세계 GDP 대비 비중이 4.5%로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2017년 이후까지 4% 이상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 (IMF)
 - 이밖에 ABC 국가들은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
-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으로 ABC 국가들의 고정자본 형성액은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연평균 21.2% 증가
 - 풍부한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에 따른 제조 경쟁력과 내수 확대,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으로 FDI 유입액증가율은 2006년에서 2011년 연평균 23.5%에 달함

< 중남미, ABC 국가 GDP 추이 >
(단위: 조 달러) (단위 %)



자료: IMF.

< ABC 국가 FDI 유입액 추이 >
(단위: 억달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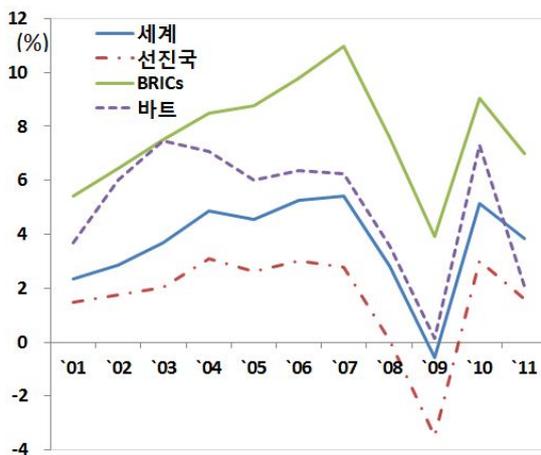


자료: UNCTAD.

② 속도의 경제 - Baht(바트)경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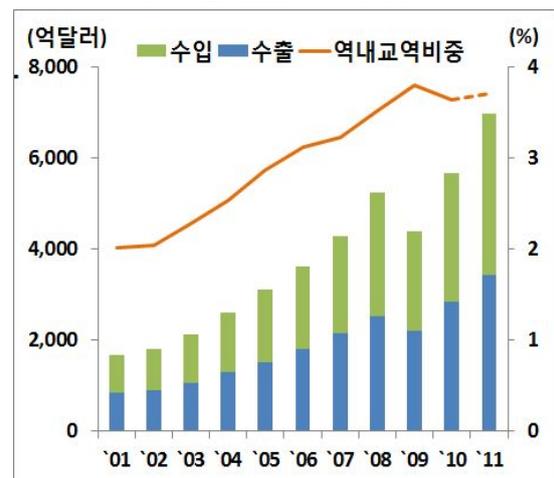
- 바트 경제권이란 태국의 화폐인 바트(Baht)화의 영향력에 따라 형성된 소규모 경제권을 일컫음
 - 일반적으로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국가들을 바트 경제권이라고 지칭함
 - 바트 경제권은 총 인구 2억 3천만명으로 한국의 약 4.7배, 총 면적은 약 19.4배에 이르는 규모
- 바트 경제권의 전세계 생산 비중은 현 1% 내외 수준에 불과하지만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바트 경제권 국가들은 금융위기에도 양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향후 6% 이상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
 - 바트 경제권 지역의 무역 거래 활성화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수입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
 - 특히, 바트 경제권 5개국의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약 19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4% 상승하는 등 최근 외국인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고성장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자본축적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

<바트 경제권 경제성장률>



자료: IMF.
주: 경제권 성장률은 역내 국가의 가중평균치.

<바트 경제권 교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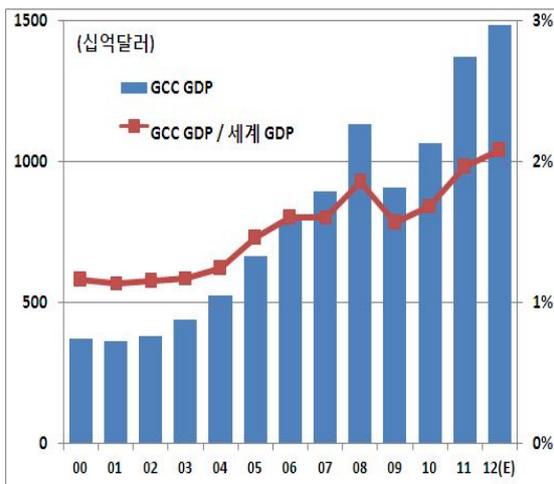


자료: IMF, UN Comtrade.
주: 2011년 역내 교역비중은 추정치.

③ 자원의 경제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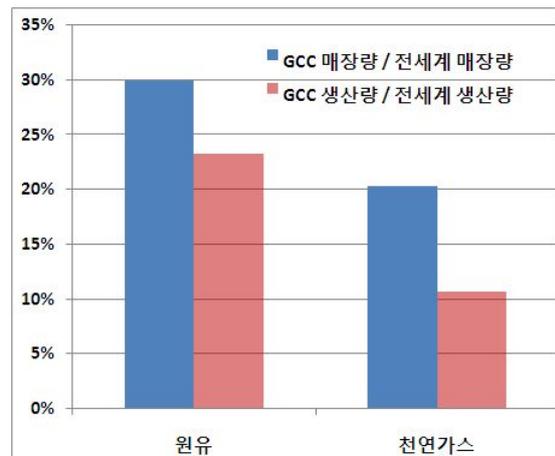
- GCC는 중동 걸프만 연안의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의 6개 산유국이 상호 협력을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 GCC 소속 국가들은 정치·종교·문화·언어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성을 지니는 석유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며, 정치적으로 세습군주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슬람교를 믿으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공통점 보유
- GCC의 명목 GDP는 2000~2012년까지 연평균 약 13%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세계 경제규모의 약 2.1%를 차지(한국은 약 1.6% 비중)
 - GCC의 중요성은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이 전세계의 각각 30%와 23%이며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의 20%와 11% 차지
- 특히, GCC는 한국의 전체 해외건설 수주 중에서 GCC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내외를 기록하는 최대 수주 시장으로써의 중요성을 가짐
 - GCC로부터의 건설 수주액은 2005년 57억 달러에서 2011년 242억 달러로 연평균 23%씩 성장
 - 한국이 중동지역으로부터 수주하는 건설공사의 80% 이상이 GCC 국가들로부터 발생

<GCC 경제권 명목 GDP 규모>



자료: IMF
주: 2012년은 추정치.

<GCC의 원유, 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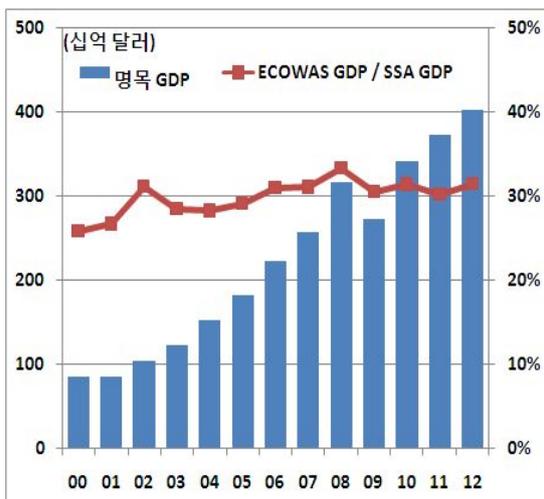


자료: BP(2011년 기준).

④ 가능성의 경제 -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 경제협력체)

- ECOWAS는 서아프리카 국가들간의 비관세 제도 및 경제협력을 통해 역내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70년대 중반에 창설된 경제협력체
 - 회원국은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에라리온,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토고의 15개국임
- ECOWAS의 GDP 규모는 2012년 기준(추정치)으로 약 4,030억 달러에 해당하며, 이는 SSA 전체(12,810억 달러)의 31% 수준
 - ECOWAS의 GDP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2%의 고성장을 기록 중이고, SSA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2000년)에서 31%(2012년) 증가
 - 나이지리아(68%), 가나(10%), 코트디부아르(6%) 등 3개 국가가 ECOWAS 경제 전체의 약 84%를 차지
- 한편 ECOWAS로의 순 FDI 투자 유입 규모는 2000년 19.2억 달러에서 2010년 113.1억 달러로 급증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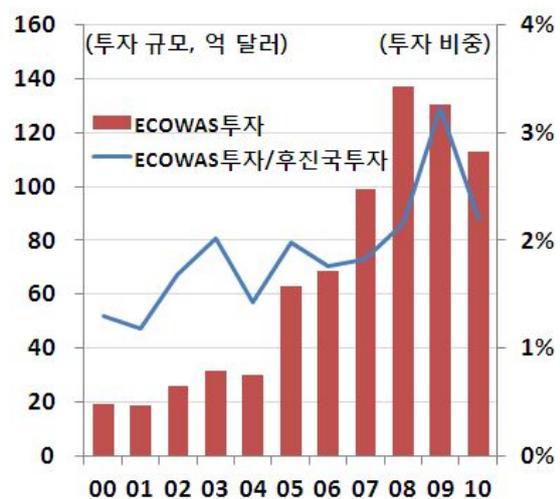
<ECOWAS 경제권 명목 GDP 규모>



자료: IMF.

주: 1) 2012년은 추정치
2) SSA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의미.

<ECOWAS의 순 FDI 규모>



자료: 세계은행.

4. 시사점

첫째, 신흥 경제권에 대한 접근은 정부 차원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경제적 협력 관계를 동반해야 한다.

- 신흥 시장의 경우 대체로 한국 경제의 지난 개발·발전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인적 원조(직업훈련, 경제·산업 전문가 파견) 강화 등을 통해 우호적 협력 관계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치·외교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경제 사절단 지속 파견, 국가간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 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
- 특히 공적원조(ODA)나 경제 발전 지원금 등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

둘째, 시장 진출 목적에 맞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이 요구된다.

- 기업은 해당 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시 수출 시장, 투자 대상, 자원 확보 등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진출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임
- 또한 해당 신흥 경제권에서 가장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된 거점 국가를 미리 선정하고 이를 발판으로 진출 대상국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요구됨

셋째, 진출에 앞서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지역의 사회·문화

적 관습이나 제도, 법률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

- 특히, 경제권과의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육성이 시급

넷째, 신흥 시장 고유의 투자 환경 및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 최근 아르헨티나의 상황에서 보듯이 국가 경제 전체의 디폴트 우려로 진출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존
- 또한 신흥 시장은 대체적으로 사회 전반의 비합리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사업등록, 세제, 투자자 보호 등 기업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참고 문헌>

- 현대경제연구원 (2012a), "잠재성장률의 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로 추락"
"VIP REPORT, No.12-03 (통권 제 474호).
- 현대경제연구원 (2012b), "양날의 칼(double-edged sword), 중국 경제", *현안과 과제*, No. 12-07.
- 현대경제연구원 (2012c), "바트경제권의 부상과 대응", *현안과 과제*, No. 12-50.
- 현대경제연구원 (2012d),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는 ABC(남미) 경제권",
현안과 과제, No. 12-52.
- Barro, Robert J. and Xavier Sala-i-Martin (1991). "Convergence across States and Region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1, pp. 107~182.
- Barro, Robert J. and Xavier Sala-i-Martin (1992). "Converg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 April, pp. 223~251.

Barro, Robert J. and Xavier Sala-i-Martin (2004). *Economic Growth*, 2nd ed., Cambridge MA, MIT Press.

Baumol, W. (1986), "Productivity, Growth, Convergence and Welfare: What the Long-Run Data Show", *American Economic Review*, 76, 5, pp. 1872~1085.

Jean Fourée, Agnès Béenassy-Quéérée and Lionel Fontagnée (2012), "The Great Shift: Macroeconomic projections for the world economy at the 2050 horizon," WORKING PAPERS No. 2012-03 February, CEPII(Centre d'E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Internationales).

Juzhong Zhuang, Paul Vandenberg and Yiping Huang (2012), *Growing beyond the Low-Cost Advantage: How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n Avoid the Middle-Income Trap*, ADB.

Mankiw, N. G., D. Romer, and D. N. Weil (1992),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No. 2: pp. 407~437.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